

【논문】

권력의 행사방식 논의에 대한 푸코의 비판과 보완

김 부 용

【주제분류】 사회철학, 현대프랑스 철학

【주요어】 실질적 권력개념 대 명목론적 권력개념, '~에게 가하는 권력' 대 '~에 대한 권력', 생산적 권력개념과 억압적 권력개념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푸코의 철학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권력 개념이 권력의 행사방식에 대한 현대의 논의구도에서 갖는 위치를 파악하고 푸코의 개념이 이러한 논의구도에 줄 수 있는 비판과 보완을 제시하여 푸코 개념의 설명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권력의 행사방식에 관한 논의구도를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의 두 개념의 대비로 이루어지는 구도로 이해한다.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는 행위 능력으로서의 권력이 사물이나 사람에 작용하는 것으로 '~에 대한 권력'의 행사는 능력에 근거한 권력이 관계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행사방식에서 푸코의 권력은 관계적 권력이라는 점에서 '~에 대한 권력'에 가깝지만 '~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서 권력이 지배와 동일시된다는 점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푸코에서 권력은 지배, 통치, 자유로운 권리들 간의 전략적 관계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푸코의 권력은 두 권력의 행사방식에 대해서 비판과 보완을 제시한다. 두 권력의 행사방식에서 권력은 실질적인 것으로 상정되어 그 기능에서 생산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푸코의 권력은 행위에 대한 행위로서 명목론적인 것으로 일차적 기능이 생산에 있다. 푸코의 권력은 '~에게 가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가역적 행사의 가능성이란 면에서 보완을 제공하고 '~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는 지배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두 권력의 행사방식에 대해서 모두 저항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보완해줄 수 있다. 이렇듯 푸코의 권력은 권력의 행사방식과 관련된 현대의 권력논의구도에서 상정되듯이 권력이 실질적인 것이 아닌, 명목론적인 것으로 제시됨으로써 생산성을 확보하고 그리하여 권력의 행사방식과 관련된 현대의 권력논의구도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 된다.

I. 들어가는 말

푸코의 체제에서 ‘권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권력의 미시물리학자로 불릴 정도로 권력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치밀한 논의를 제공했으며 억압적이라고 여겨지던 권력에 대해서 생산적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했다. 그의 중요한 주제인 지식-권력에서도 지식보다는 권력의 우선성이 더 강조된다고 평가될 정도로 ‘권력’은 푸코 체제 내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인 푸코의 ‘권력’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가 제시하는 권력의 특징에 초점이 맞추어져 권력의 편재성, 생산성, 모세 혈관적 작동방식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가 푸코의 권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푸코의 권력개념 내에서 특징을 드러내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푸코의 개념이 권력에 대한 여러 논의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철학자로서의 푸코의 ‘권력’은 정치학을 위시한 사회과학에서 논의되는 권력개념과는 다른 문제의식과 개념들에서 성립한 것으로 여겨져서 푸코의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해야 하는 현상과 현대의 정치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원용되는 권력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각기 별도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 결과 푸코의 권력개념은 여성주의, 퀴어이론(queer theory)과 같은 소수자 이론처럼 대체로 특수한 세계관이나 이념적 입장을 지닌 이론에서 현

실이해의 틀로 삼거나 그러한 현실이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럼으로써 푸코의 권력개념은 포괄적인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마치 사회구성체에 대한 전면적 설명을 위해서 보다는 주변인, 비정상인에 대한 설명과 옹호를 위한 개념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푸코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활용된 것은 푸코의 개념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의 논의 구도에서 어떤 좌표와 위상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로 인하여 푸코의 ‘권력’이 현대의 권력 논의에 줄 수 있는 비판과 보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타 정치·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권력논의의 구도를 정리해보고 이러한 논의구도에서 푸코의 ‘권력’이 차지하는 좌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푸코의 개념이 다른 권력개념에 대해서 비판과 보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II. 푸코의 명목론적 권력

푸코의 ‘권력’이 권력에 관한 현대의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푸코의 권력이 갖는 특징을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논의에 대한 보완의 내용은 푸코의 개념이 갖는 특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권력의 행사방식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현대의 권력논의와 관련해서 푸코의 권력이 갖는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권력의 생산적 측면이다. 푸코의 권력이 가지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 이 생산성은 푸코의 권력이 갖는 명목론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푸코의 권력은 존재적으로 실질적인 것이 아닌 명목론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행위로서 존재한다는 특성도 갖는다. 또한 이 특성이 푸코의 권력을 억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 명목론적인 존재적

특성이 푸코의 권력에 부여하는 생산성이 현대의 권력논의에 대한 비판과 보완의 근거이다. 이는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푸코가 제시하는 권력의 특징에 집중하고자 한다.

푸코는 권력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는가?’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에 관한 명목론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푸코에서 “실질적 의미에서 권력 즉 권력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¹⁾ 권력은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제도도 구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부여된 일정한 힘도 아니며 “한 사회의 복합적인 전략적 상황에 붙여진 이름”²⁾으로서 “관계, 어느 정도 조직되고, 위계적이며 조정된 관계의 집합체이다.”³⁾

실질적이 아닌 명목론적인 푸코의 권력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누구에 의해서 소유될 수 있는 소유대상이 아니다. 푸코는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는가의 문제를 권력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행사되는가의 문제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권력을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권력의 소유정도와 행태 등에 의해서 권력의 행사와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무엇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기 때문에 권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권력의 행사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둘째, 명목론적인 권력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력관계는 다른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 외재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형의 관계에 내재한다. “권력은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한 지점에 대한 다른 한 지점의 모든 관계에서 산출된다. 권력은 도처에 있는데 이는 관계가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⁴⁾ 푸코는

1) Foucault, “The Confession of the Flesh”, in *Power/Knowledge*, p.198.

2) Foucault, *La Volonté du Savoir: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I*, Paris: Édition Gallimard, 1976, p.123.

3) Foucault, “The Confession of the Flesh”, p.198.

4) Foucault, *La Volonté du Savoir: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I*,

이에 대해서 ‘권력은 이미 거기에 있다’는 말로 표현한다. “권력은 이미 존재한다. 누구도 권력 밖에 있을 수 없다.”⁵⁾ 관계의 형성은 권력의 형성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권력관계는 다른 관계와 얽혀 있고 그 관계에 내재하는 권력은 거기서 생겨나는 분할, 불평등, 불균형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차별화의 내부적 조건이다.⁶⁾ 따라서 권력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권력의 효과이며 권력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현실의 선험적 조건으로서의 권력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명목론적인 권력은 파트너들 간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행위들이 다른 행위들을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존립한다.⁷⁾ 권력은 행위로서만 가동될 때 존재하는, 그 자체가 행위로서 행위의 발생, 변경, 변형을 이끈다. 그러므로 권력은 열린 가능성의 영역이다. 권력의 행사는 행위의 가능성을 이끌고 가능한 결과를 배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권력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행위가 다른 행위에 발휘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능성적 행위영역을 이해함으로써만 설명된다.

이렇듯 푸코의 권력은 실질적인 것이 아닌 명목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편재적인 특성,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많고 적음으로 그 행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특성, 행위의 행위로서 행위의 효과를 통해서만 행사와 존재가 확인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푸코의 권력은 행위의 효과로서 존립하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에 대한 해명은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능성적 행위영역에 대한 기술로서 드러나고 이 기술은 한 행위가 다른 가능성적 행위들을 금지

1976, p.122.

5) Foucault, “Power and Strategies”, in *Power/Knowledge*, p.141.

6) Foucault, *La Volonté du Savoir: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I*, pp.123-124.

7) Foucault, “Two Lectures”, in *Power/Knowledge*, p.89; *Surveiller et Punir*, p.31.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다른 행위들의 개연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에 대한 해명도 포함해야 한다.⁸⁾

넷째,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억압과 금지하는 권력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 권력으로 드러난다. 푸코는 되묻는다. “권력이 억압하고 금지하기만 한다면 즉 아무런 생산적 기능이 없다면 누가 권력에 복종하고 어떻게 권력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⁹⁾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권력이 사물을 관통하고 생산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고 담론을 생산한다.”¹⁰⁾ 권력은 사회 전체를 관주하는 생산적 연결망이다.

권력은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정한 의도를 갖고 작동한다, 권력행사는 비주관적 행위이지만 아무런 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다. “권력관계는 비주관적인 동시에 지향적이다. 권력관계가 이해가능한 것도… 권력관계의 도처에 계산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목적과 목표가 없이 행사되는 권력은 없다.”¹¹⁾ 누구의 손아귀에도 장악되지 않는 권력은 익명성을 가지지만 일정한 효과를 노리고 행사된다. 권력의 목적과 목표는 권력관계의 형성지점과 미시적 권력관계들이 통합되는 국면과 심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회 전체에 편재하는 권력은 그 자신의 목표, 적용역역을 갖고 거기서 스스로를 자리잡게 하고 효과를 발생한다.¹²⁾ 그리하여 권력은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을 범주화하고 개인을 그의 개별성에 의해서 특징 지우고 개인을 고유의 정체성에 밀착시키며 개인에게 스스로와 타인이 인정하고 인식해내야 하는 진리의 법칙을 부과한다.¹³⁾

8) Hoy, “Power, Repression, Progress: Foucault, Lukes, and Frankfurt School”, *Foucault: A Critical Reader* (Ed.) by Hoy, David Couzens, Orford: Basil Blackwell, 1986. p.135.

9) Foucault, “Truth and Power”, *Power/Knowledge*, p.119.

10) Foucault, *Ibid*, p.119.

11) Foucault, *La Volonté du Savoir: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I*, pp. 124-125.

12) Foucault, “Two Lectures”, p.97.

13)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p.212.

다섯째, 생산적인 푸코의 권력은 저항을 부정하지 않는다. 푸코의 우려대로 권력은 편재하기 때문에 저항을 허용하지 않을 것¹⁴⁾이라는 인상을 준다. 권력은 자유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필요로 한다. 권력은 자유(로운 권리들) 사이에서 전략적 게임의 형태로 성립하는 관계의 총체이다. 자유가 없는 곳, 완전한 노예의 상태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은 성립할 수 없다.¹⁵⁾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의 여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지배의 상태도 실재한다. 많은 경우 권력관계는 지배의 형태를 통해서 자유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유의 완전한 부정을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간에서 행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유형의 관계인 권력의 특징은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를 완전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¹⁶⁾

지금까지 제시된 푸코 권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푸코의 권력이 실질적인 것이 아닌 명목론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성립되는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관계적 특성, 편재성, 행위의 행위라는 특성은 그 자체가 명목론적 권력의 일차적 특징이라면 권력의 생산성과 저항의 공존 허용은 명목론적인 권력이라는 점에서 파생된 이차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푸코의 권력은 이러한 명목론적 권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될 권력의 행사방식에 관한 현대의 권력논의구도에 생산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서 우선 권력의 행사방식에 관한 현대의 권력논의구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14) Foucault, "Ethics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Final Foucault* ed. by James Bernauer and David Ramussen, Cambridge: The MIT Press, 1988, p.12.

15) Foucault, *Ibid.*, p.12.

16) Foucault, "Politics and Reason", in *Michel Foucault: Politics, Philosophy,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88, p.84.

Ⅲ. 권력 행사방식의 논의구도

권력은 현상으로서나 개념으로서나 유구한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권력의 개념, 이론을 위시하여 권력의 성립근거, 행사의 정당성 나아가 권력의 구체적 행사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립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룩스가 말한 대로 권력은 ‘본질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¹⁷⁾ 무엇보다도 그것은 권력의 행사자 혹은 사용자 측면에서 올바른 사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불가피하게 끊임없는 논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력이 ‘권력이란 무엇인가?’와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합의된 견해가 성립되기 어렵게 만드는 애매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논쟁, 이론들은 몇 가지 관통하는 쟁점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때로는 권력의 정의라 할 수 있는 권력의 개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때로는 권력의 행사방식에 중점하고 그와 관련하여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혹은 권력행사의 결과 즉 권력의 효과에 초점을 둔 논의를 전개하여 경험적 차원에서 권력의 성공적 수행을 가르치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권력과 관련하여 전개된 기존의 논의 구도를 크게 권력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와 권력의 행사방식에 관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권력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구도는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천착한 것이라면 권력의 행사방식과 관련된 논의구도는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는가’의 문제의식에 천착한 것이다. 이러한 두 구도에서 특히 푸코와 관련이 있는 것은 후자의 논의구도이다. 그것은 푸코가 더욱 중요시한 것이 ‘권력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는가’의 주제였기 때문이다. 철저한 경험주의자로서 푸코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17) Lukes, *Power: A radical view*, Palgrave Macmilan, 2005, pp.110-111.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의 의미나 정당성이 아니라 그 이루어짐의 효과를 밝혀서 인간의 경험과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푸코의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권력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효과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데 집중한다. 따라서 푸코는 ‘권력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의식에서 권력의 정의나 개념을 제시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결과 그에게서 더욱 풍부하게 나타나는 논의는 권력의 행사방식과 관련된 해명과 언급이다.

권력의 행사방식과 관련된 논의구도는 권력을 ‘power-to’와 ‘power-over’로 구분하는 것이다. ‘power-to’는 “어떤 것을 하거나 효과를 일으키는 능력 혹은 사람이나 사물에 작용하는 능력”으로서의 권력이 사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용법은 ‘~에게 권력을 가진다(has power to, 이하 ‘~에게 가하는 권력’)’의 구문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권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줄임말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용법에서는 권력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존재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에게 가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를 권력이 가진 능력, 역량, 재능의 발휘로 보고 권력행사의 목표를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에게 권력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에 둔다. 그러므로 권력이 인간에게로만 제한되어 행사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에게 가하는 권력’을 인간 혹은 사회적 행위자에게로 제한하는 입장도 있다. 특히 홉스(T. Hobbes)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 입장은 ‘~에게 가하는 권력’을 ‘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한 사태를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한다.¹⁹⁾ 권력을 환경의 지배를 통해서 목적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²⁰⁾ 홉스의 개념이 권력을

18) Watrtenberg, *The Forms of Power*, Philadelphia: Temple Univrsity Press, 1990, p.18.

19) Hobbes, *Leviathen*, London: Penguin Books, 1968, p.150.

20) Hindess, *Discourses of Power: From Hobbes to Foucault*, Blackwell Oxford: Publishers, 1996, p.23.

인간에게로 한정할 지라도 권력을 사회적 영역 내에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유되고 행사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권력은 다른 인간과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특정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능력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에게 가하는 권력’이 갖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에 대한 논의에서 두드러지는 현대의 권력논쟁도 이러한 행위능력으로서의 권력을 전제한다. 이 논의는 권력 행사를 실현하는 결과의 차이를 능력과 역량의 차이로 귀속시킨다. 현대 권력논쟁의 대표주자인 달(R. Dahl)과 바슈라취(P. Bachrach) 및 배래츠(M. S. Baratz)는 모두 이러한 입장을 전제하고서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 방식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달은 밀즈(C. W. Mills)의 권력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미국사회에서 권력이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나 지방적 차원에서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논박한다. 이 논박에서 전제되는, 권력에 대한 달의 입장은 권력 행사의 확인은 공공연한 갈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갈등은 권력의 차이 즉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위능력의 차이에서 연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달이 권력을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질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달은 행위능력에 근거한 양적 현상인 권력은 양적 능력의 차이의 확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양적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권력 행사의 준거상황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엘리트에 대해서도 엘리트로 추정되는 집단이 다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망을 정상적으로 부과하거나 실현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지배엘리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지배엘리트가 저항 세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과 지배엘리트가 그러한 권력을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의 의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다원주의적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권력논쟁을 확산시킨

바슈라취 및 배래츠에서도 권력은 능력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질적 속성을 가진다. 달은 그 실질적 속성을 공적 영역에서 확인하지만 바슈라취와 배래츠는 권력이 행사되는 두 영역과 방식을 뚜렷이 구분하여²¹⁾ 권력이 공공연한 공적 얼굴의 형태로만 행사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권력의 행위능력은 구체적 실현뿐만 아니라 은밀한 배제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바슈라취와 배래츠의 주장이다.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입법회의, 자문회의 등 여러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가 고려되지 않고 은밀하게 배제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두 이론가는 은밀한 배제 즉 비결정도 결정만큼이나 권력의 행사로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이 배제와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바슈라취와 배래츠는 달과 마찬가지로 권력 행사의 결과는 능력의 차이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면서 달과 달리 비결정의 방식이라는 ‘~에게 가하는 권력’의 또 다른 행사방식을 보여준다,

‘power-over’는 “지배, 통치, 영향력, 명령, 통제, 권위 등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나 명령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된 권력이 관계를 통해서 행사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법의 근저에는 권력이 인간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포함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이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힘입어 이루어지는 위계적 관계이기가 쉽다. 이러한 의미의 권력개념은 ‘~에 대하여 권력을 가진다(has power over, 이하 ‘~에 대한 권력’)’의 구문의 형태에서 발생한다. 이 구절에서 권력은 관계적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명령한다고 말해질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들에게로 제한된다.²²⁾

‘~에 대한 권력’은 권력의 행사가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21) Ibid, p.58.

22) Ibid, p.18.

인간에게로 제한되어 행사되는, ‘~에 대한 권력’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효과를 얻고자 이루어지는 권력행사의 방식이기 때문에 관계의 성격에 따라 권력의 행사 형태가 영향, 지배, 통제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방식에서 권력의 행사 형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지만 ‘~에 대한 권력’은 권력의 행사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그 행사 형태에 따라 정당화된 권력행사인지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서 권력은 관계적 현상으로 전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 대한 권력’은 단지 의도된 효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성을 가진 효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에 대한 권력’의 행사방식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A가 B에게 영향을 미친다’의 도식이다.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A는 B의 이해에 반대되게, 혹은 B가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을 하게 함으로써, B의 실제이해는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등으로 B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서 ‘A가 B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한다’의 의미도 ‘A가 B에 대해서 B의 의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혹은 A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을 B가 하게 하는 방식으로 혹은 B의 실제이해는 알지 못한 채 A의 이해에 기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로 해석된다.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력은 “두 행위자들 사이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상징한다.”²³⁾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개념에서는 권력은 지배와 거의 동일시된다. 그것은 이 권력개념에서 관계항들 사이의 관계를 대칭적이기 보다는 비대칭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에 대한 권력’의 행사방식을 보여주는 권력 개념은 앞에서 제시한 현대의 권력논쟁을 정리한 룩스(S. Lukes)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23) Ibid, p.24.

룩스는 자신의 권력개념을 삼차원의 급진적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에 대한 권력’의 행사방식을 강조한다.²⁴⁾ 룩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가 정치적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견해에 머물지 않고 권력이 행사되는 사례 중에서 그 희생자가 자신의 실제 이해가 위기에 빠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러한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²⁵⁾ 바로 이러한 경우 즉 행사대상자에게 갈등 상황이 아닌 일상적 삶의 상황에서까지 사고와 욕망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효과는 알지 못하게 만들면서 행사되는 은밀한 권력의 형태를 룩스는 삼차원의 급진적 권력으로 정의한다.²⁶⁾ 룩스의 이러한 정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관념은 지배계급의 관념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나 부르주아 헤게모니는 억압과 동의로 구성된다는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상기시킨다. 그람시에 의하면 부르주아 지배에 대한 대중의 동의는 단지 대중이 자본주의 지배 하에서 자신들의 실제 이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²⁷⁾ 말하자면 룩스는 명시적 갈등의 상황에만 초점을 두어 이러한 갈등상황에서의 관찰에 의거하여 권력을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비판한다.

룩스가 자신의 권력개념을 삼차원의 급진적인 것으로 보는 근거는 ‘A는 B가 자신의 실제이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B의 이해와 상반되게 B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B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권력의 교묘하고 음흉하기까지 한 효과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권력은 행사되고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권력의 이러한 측면을 보지 못하는 권력개념에 비해 자신의 개념은 권력의 근본적 모습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급진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룩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행사에서 억압의 측면에 더 중점을 둔다. 권력이 급진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명시적 억압

24) Lukes, *Power: A Radical view*, Palgrave Macmillan, 2005, pp.124-134.

25) Ibid, pp.28-29.

26) Ibid, p.146.

27) Hindess, Ibid, pp.5-6.

이 아닌 은밀한 형태의 비명시적 억압을 행사함으로써 억압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룩스는 자신이 각각 일차원적, 이차원적 권력개념으로 규정한 달의 다원주의적 권력이나 바슈라취 및 배래츠의 이원적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억압의 명시적 형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권력행사의 완결적 면모는 명시적 억압을 넘어서서 비명시적 억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삼차원적 권력개념은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며 다른 논의에 대해 강점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의 두 개념은 어휘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권력 이론에서 어느 개념을 근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세계에서 권력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다른 조망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타당한 문제들 중에서 푸코가 제시하는 권력의 소유, 장소, 토대, 이데올로기 등도 권력개념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권력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에 가한 권력’과 ‘~에 대한 권력’은 다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두 권력의 행사방식에 대해서 푸코는 어떤 비판과 보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봄으로써 푸코의 권력이 갖는 포괄성과 설명력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V. 푸코의 비판과 보완

권력의 행사방식과 관한 논의구도에서 푸코는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푸코가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는지를 보자. 이에 대한 입장은 권력과 관련하여 “사물들에 행사되는 능력과 개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구분해야 한다”²⁸⁾는 푸코

의 주장에서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다. 푸코가 제시하는 구분이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에 대한 구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푸코는 전자의 권력을 사물을 변경하고 사용하고 소비하고 파괴시키는 능력으로 보고 신체에 직접적으로 내재하는 자질이나 외적 수단에 의해서 전달된 힘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작동시키는 권력이라고 규정한다.²⁸⁾ 이렇게 보면 푸코의 권력 개념은 ‘~에게 가하는 권력’이 아님이 일차적으로 분명해지지만 과연 푸코가 관계에서 성립하는 권력이 ‘~에게 가하는 권력’ 즉 작용의 능력이 없이도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푸코에서는 관계 자체가 물적 토대를 갖는 사태(event)이므로 관계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물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와 관계의 물적 토대는 존재적 위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 관계의 물적 토대에도 작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의 물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푸코의 관계적 권력개념에도 작용능력으로서의 권력 즉 ‘~에게 가하는 권력’이 전제되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푸코의 권력이 형이상학적 관계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권력은 관계의 물적 토대 이외에 자신의 물적 토대인 작용의 능력 즉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적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푸코의 권력이 능력의 양적 차이에 의존해서 행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권력의 구체적 물질적 효과를 위한 장치로서 ‘~에게 가하는 권력’의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의 구도에서 푸코의 개념과 관련하여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에 대한 권력’이다. 기본적으로

28)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Afterward of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y Hubert L. Dreyfus and Paul Rabino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p. 217

29) Foucault, *Ibid*, p.217

‘~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서 권력이 관계적 현상으로 전제된다는 점에서는 푸코와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적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푸코의 권력을 ‘~에 대한 권력’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에 대한 권력’은 지배와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푸코의 권력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서 권력은 단지 의도된 효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성을 가진 효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권력의 행사방식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A가 B에게 영향을 미친다’의 도식에서 관계항들 사이의 관계는 대칭적이기 보다는 비대칭적이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배로 나타나기 쉽다. 지배는 권력행사방식의 한 형태에 불과할 정도로 푸코의 권력은 그 이상의 포괄적인 행사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체로 지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에 대한 권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푸코가 줄 수 있는 비판과 보완을 살펴보자. 푸코가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일차적 비판은 이 두 행사방식에서 권력의 생산적 기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권력이 실질적인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먼저 ‘~에게 가하는 권력’은 권력을 행위능력에 근거한 것으로 봄으로써 권력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질적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방식이 전제하는 행위 능력으로서의 권력개념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권력은 전기력이나 운동의 힘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간주되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작동하게 될 양적 능력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권력이 능력에 근거함으로써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질적 속성을 갖게 됨이 드러난다. 그럼으로써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방식에서 권력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누군가에게 소유되는 것이다. ‘~에게 가하는 권력’은 권력을 소유하거나 혹은 더 많이 소유한 측이 권력을 소유하지 않거나 더 적게 소유한 측

에게 작용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제 ‘~에게 가하는 권력’은 권력의 소유자가 행위 능력에 근거하여 사물이나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사람을 다루기 위한 사용이다. 이러한 사용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비대칭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의 목적이 적게 가진 사람의 목적보다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버는 ‘권력을 한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행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³⁰⁾과 동일시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러한 권력행사의 효과에 종속되는 사람 간의 비대칭적 관계는 나아가 권력을 지배의 수단이 되게 한다.³¹⁾

권력을 행위 능력에 근거한 실질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에 가한 권력’에서 권력의 행사는 능력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며 권력을 소유한 측과 그렇지 않은 측 혹은 권력을 많이 소유한 측과 적게 소유한 측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대칭적 작용으로 드러난다. 행위 능력의 많고 적음, 즉 권력의 격차는 일정한 지속성과 고정성을 갖는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는 가역적 행사가 될 수 없다. 권력의 행사는 언제나 일방향의 행사로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측의 의도의 실현을 위한 행사에 한정된다. 앞에서 논의한 달의 다원주의적 권력 개념에서 권력의 행사가 갈등의 상황에서 포착된다는 것도 갈등의 상황에서 권력을 적게 가진 측의 의도가 좌절되어 권력의 행사로 드러나야 권력의 행사로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바슈라취 및 배래츠의 이원적 권력행사에서 바슈라취 및 배래츠가 강조하는 권력 행사의 형태로서의 비결정도 권력을 많이 가진 측의 의도실현을 위해 적게 가진 측의 의도좌절을 유도하는 비결정이라는 점에서 비대칭적 권력행

30)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a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8, p.926; Hindess, Ibid, p.2에서 재인용.

31) Ibid, p.2.

사를 보여준다. 이 비가역적 행사가 달에서는 의도의 실현이라는 가시적 형태만으로 드러나지만 바슈라취 및 배래츠에서는 의도의 실현이라는 가시적 형태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의도의 좌절이라는 드러나지 않은 가시성의 형태를 함께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방식은 ‘행위 능력’으로서의 실질적 권력개념을 전제하여 능력의 차이를 통한 행사에 집중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대체로 비대칭적 비가역적 권력행사로 드러나게 만든다. 그리하여 이러한 권력 행사방식은 권력에 의해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생산적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억압적 부정적 측면에 치우치는 한계를 가진다. 푸코는 권력에서 오히려 강조해야 할 것은 억압적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생산적 긍정적 측면이라고 본다. 권력이 인간의 경험, 실천, 사회적 삶을 형성하는 데서 매우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억압적 기능의 강조로는 그 강력한 생산성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푸코의 권력은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방식을 넘어서서 오히려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방식이 드러내지 못하는 권력의 비명시적 비주관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

푸코는 그러므로 ‘~에게 가하는 권력’에 대해서 권력의 개념이 능력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권력의 행사가 언제나 비가역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을 제안할 수 있다. 권력의 행사와 효과를 구분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가져 오는 효과가 능력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푸코가 줄 수 있는 보완적 제안이 된다. 권력의 일차적 효과를 억압으로 볼 때 권력을 많이 가진 측이 적게 가진 측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억압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생산적 효과에 주목하면 권력을 적게 가진 측도 권력을 많이 가진 측을 상대하여 자신의 의도 실현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권력의 푸코에서 권력은 ‘한 행위가 다른 행위에 발휘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능적 행위영역은 권력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개연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그 개연성은 권력의 많고 적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권력의 양이 아니라 권력의 기술³²⁾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개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푸코의 권력개념은 ‘~에게 가하는 권력’의 행사가 능력으로서의 권력을 전제하면서도 실제 효과의 성립에서는 능력의 차이가 아닌 기술의 차이가 더 주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에게 가하는 권력’의 비가역적 행사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에게 가하는 권력’에서도 견제와 저항의 가능성 면에서 일정한 제한이 완화된다. ‘~에게 가하는 권력’에서처럼 권력에 대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권력의 행사를 말할 수 있다면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제한적이 되고 그 결과 많은 권력의 효과들이 권력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서 권력에 대한 저항은 물론이고 필요하고 적절한 권력비판까지도 차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권력은 행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푸코는 권력을 명목론적으로 봄으로써 권력의 행사와 효과를 구분하여 권력 행사의 경험적 확인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권력은 행위에 대한 행위로서 확인되는 것은 권력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푸코에서는 권력이 행사되는 그 순간에도 권력은 확인되기 어렵다. 오직 효과를 통해서 권력의 행사를 추적하고 이해하며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도 효과를 통해서 행사를 추적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권력과 관련하여 언제나 저항과 비판의 가능성이 확보된다.

푸코는 ‘~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도 생산성과 저항가능성의 측면에서 비판과 보완을 제시할 수 있다. ‘~에 대한 권력’은 권력을 관계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에 대한 권력’에서도 권력의 실질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에 대한 권력’이 권력의 행사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32) Foucault, "Truth and Power", *Power/Knowledge*, p.119.

것으로 보면서도 권력 자체를 능력에 의거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권력은 능력의 차이에 의거하여 관계를 통해서 행사된다는 것이 ‘~에 대한 권력’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대한 권력’도 여전히 실질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에 대한 권력’의 행사방식은 기본적으로 ‘A가 B에게 영향을 미친다’의 도식으로 설명된다.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식도 기본적으로 지배의 범주 하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한다. 그것은 A가 B에게 영향을 미칠 때 B의 이해에 부합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B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게, B의 이해에 반하게, B의 이해를 제외시키면서 영향을 미치되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에 대한 권력’의 행사방식이 포섭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영향을 미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와 B 간의 권력의 격차가 성립되어야 하고 이 격차는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에 대한 권력’은 한 행위자가 자신에게 가용한 가능성들의 전체 집합을 가지고 행위할 수 없을 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³³⁾ 사회적 행위자 A는 또 다른 사회적 행위자 B의 행위환경 즉 B가 행위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해 제약을 가할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B에 대해서 권력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의 권력 사용 즉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기술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가들은 지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은 이론적 작업이 필요한, 행위자에 의한 행위자의 지배를 구성하는 체계적 권력사용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³⁴⁾ 이것은 지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주어진다. “사실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배는 지배적인 사회적 행위자가 지배당하는 사회적 행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자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된 상황에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 대해서 갖는 권력을 지칭한다.”³⁵⁾ 즉 지배당하는 행위자가 이

33) Wattrenberg, Ibid, pp.83-84.

34) Ibid, p.115.

35) Ibid, p.117.

관계를 통해서 해를 입을 때 지배의 사태가 성립한다. 이러한 지배는 일회적인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로 보이는 권력의 행사는 두 행위자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조건지어야만 지배로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푸코는 권력의 행사를 지배와 동일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의 생산적 기능보다는 억압적 기능에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푸코가 지배와 권력관계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동일시가 권력을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 보고 권력이 가진 생산적 측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푸코가 권력관계의 한 유형으로서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푸코는 세 가지 유형의 권력관계 즉 자유로운 권리들 사이의 전략적 게임, 통치, 지배에 대해서 말한다. 푸코 역시 지배가 안정적이고 위계적인 권력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권력일반과 지배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에 대한 권력’이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관계를 파트너들간의 이원적 권력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에 대한 권력’의 대표적 형태인 룩스의 급진적 권력조차도 푸코의 권력만큼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룩스가 고정된 관계로서의 권력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룩스는 이원적 권력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해가 좌절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좌절시키는 권력의 행사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를 밝힐 수 있지만 푸코에서처럼 그 개인 자체가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임을 보여주지 못한다. 룩스 개념에서는 이미 정립된 개인을 상정하고 그들간의 이원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급진성을 보여주지만 개인의 실제 이해에 대한 몰각과 자기이해 손실이라는 효과 이상을 낳지 않는다. 즉 생산적 측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형성이라는 생산적 효과를 낳음으로써 룩스 개념을 확대한다. 이 점에서 푸코는 룩스의 급진적인 권력 개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급진적인 권력개념을 제시한다. 푸코는 권력이 ‘날날의 개인에 도달하여 그들의 행동과 태도, 담론,

학습과정, 일상의 삶에 침투하는 지점을 생각할' 정도로 권력의 메커니즘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밝힘으로써 권력은 개인의 정립에까지 작용할 정도로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푸코의 권력이 고정된 이원적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행위로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형성이라는 생산적 효과를 산출했다는 의미이다. 룩스의 개념에서는 권력이 이미 정립된 개인에게 그 일상을 통해 전면적으로 은밀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급진성이 확보되지만 푸코에서는 급진적 권력이 개인 혹은 주체로서의 개인의 형성에까지 작용한다³⁶⁾는 점에서 급진성을 능가하는 초급진성을 보여준다. 푸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초급진성은 생산적 급진성이고 그것은 이원적 권력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오히려 행위로서의 권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푸코의 권력 행사 방식에 초급진적 생산성을 부여하는 개인의 형성은 신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정치적 관계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들은 신체에 부여되고 신체를 특징짓고 훈련시키고 고문하고 신체들이 과업을 수행하고 기념행사를 치르고 기호들을 발생시키도록 강제한다.”³⁷⁾ 권력은 낱낱의 신체를 건드리고 그들의 행위와 태도, 몸짓, 담론, 배움의 과정, 일상적 삶에 끼어든다.³⁸⁾ 그 결과 개인의 신체를 통해서 개인의 신체 위에서 인간의 욕망과 지식에 작용하면서³⁹⁾ 효과가 발휘된다. 이렇듯 푸코의 권력은 ‘~에 대한 권력’의 행사방식이 확보하지 못하는 생산성을 초급진적 수준에서 보완해줄 수 있다. 즉 권력의 생산성을 주체, 개인의 생산으로까지 확대하여 권력이 사회적 삶에서 전면적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은 ‘~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상정하는 이원적 권력관계가 일정

36) Foucault, “Two Lectures”, p.98.

37)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Édition Gallimard, 1975, p.30.

38) Hoy, *Ibid.*, p.131.

39) Foucault, “Body/Power”, in *Power/Knowledge* p.59.

한 고정성을 갖기 때문이다. ‘~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서 강조되는 지배가 두 행위자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조건지어야만 성립되는 일회적인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로서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측면이다. 권력관계가 고정되면 그 관계에서 행사의 방향도 고정된다. 즉 권력이 많은 측이 적은 측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비가역적 행사가 되는 것이다. 고정된 방향의 행사가 됨으로써 권력의 행사는 지배의 형태에 집중하게 된다. 권력의 행사가 지배의 형태로 집중됨으로써 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은 약화된다. 푸코에서처럼 권력이 있는 모든 곳에 저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저항은 권력관계의 특정자리에서만 가능하고 저항의 성공도 권력관계의 전도가 이루어질 때만 성립한다. 즉 권력관계의 전체인 능력의 차이가 역전될 때 저항이 성공하고 그럼으로써 권력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나 푸코에서 권력은 행위로서의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관계가 고정될 수 없다. 매번의 행위의 차이와 그 효과에 의한 개연성의 차이는 권력관계를 유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유동적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 방향도 유동적이고 따라서 권력행사도 가역적일 수 있다. 가역적 행사이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가 지배의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결과 저항의 가능성도 제한되지 않는다.

푸코는 ‘~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생산성과 저항가능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에 대한 권력’은 권력을 파트너간의 고정된 관계가 아닌 행위에 대한 행위로 이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적 삶에서 부딪치는 권력은 이원적 관계에 의해서 성립된 권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권력은 행사되고 있지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권력 현상을 위해서 푸코가 선택한 표현인 ‘행위에 가하는 행위’로서의 권력에서 누구의 행위가 누구의 행위에 작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지 그 작용으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력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며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중요해진다. 효과에 집중하여 권력의 행사를 파악하게

되면 권력의 생산적 효과를 포착할 수 있고 따라서 푸코가 제시하는 수준의 생산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의 행사방식에 관한 현대의 논의구도는 권력의 생산적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이 두 행사방식에서 전제되는 권력이 실질적인 것이라는 존재적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두 행사방식 모두 권력의 격차를 말함으로써 능력이라는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속성을 갖는 권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에게 가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를 비가역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에 대한 권력’은 권력의 행사를 지배와 동일시함으로써 각각 권력의 생산적 기능 보다는 억압에 중시한다. 따라서 저항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이에 대해서 푸코는 권력을 명목론적인 것으로 즉 행위의 행위로 제시하여 각 행사방식에 대해서 비판과 보완을 제시하여 생산성과 저항의 측면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상이자 개념으로서의 권력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에서 권력의 행사방식과 관련된 구도는 권력을 ‘~에게 가하는 권력’과 ‘~에 대한 권력’으로 구별한다. 이 논의구도에서 푸코는 ‘~에 대한 권력’에 가까울지라도 권력의 두 행사방식 모두에 대해서 비판과 보완을 제시한다. 즉 각 권력의 행사방식에 대한 논의가 결여하고 있는 요소를 포섭함으로써 더 큰 설명력을 갖는다. 그것은 푸코의 권력이 두 행사방식이 전제하는 실질적 권력이 아니라 명목론적인 권력이라는 점에서 생산성과 저항의 가능성 면에서 강점을 갖기 때문이다.

‘~에게 가하는 권력’은 행위 능력으로서의 권력이라는 실질적 권력에 전제하여 권력의 행사를 가역적인 것으로 드러내어 억압적 권력의 양상에 치중하고 그리하여 저항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에 대한

권력'은 권력을 관계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보지만 그 관계를 이미 형성된 고정화된 이원적인 것으로서 상정하여, 그러한 관계를 통한 권력의 행사가 행위 능력으로서의 권력에서 드러나는 격차에 의거하는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써 권력의 행사를 지배에 집중시키고 따라서 저항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푸코의 명목론적 권력은 행위의 행위로서 능력의 차이에 의거해서 행사되지도 이원적 관계를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도 아님으로써 두 권력의 행사방식이 확보하지 못하는 생산성을 담보하게 해주고 '~에게 가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가역적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는 지배 이상의 양태를 보여주어 각각 저항의 가능성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푸코의 권력이 가진 포섭력과 근본적 특성은 현대의 사회구성체에서 일어나는 권력현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력을 보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 고 일: 2010. 10. 12.
심사완료일: 2010. 10. 28.
게재확정일: 2010. 11. 04.

김부용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탐신 스파고, 『푸코와 이반이론』, 김부용 옮김, 이제이북스, 2003.
- Aron, Raymond, “Macht, Power: Democratic Prose or Demoniactal Poetry?” in *Power* (Ed.), Lukes, Steven,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86.
- Detel, Wolfgang, *Foucault and Classical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Foucault, Michel,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Édition Gallimard, 1975.
- _____, *La Volonté du Savoir: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be I*, Paris: Édition Gallimard, 1976.
- _____, “Body/Power” in *Power/Knowledge*, ed. by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 _____, “Power and Strategies”, in *Power/Knowledge*.
- _____, “The Confession of the Flesh”, in *Power/Knowledge*.
- _____, “Two Lectures” in *Power/Knowledge*.
- _____, “The Subject and Power” in *Afterward of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y Hubert L. Dreyfus & Paul Rabino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Foucault, Michel, “The Ethics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Final Foucault* (Ed.), by James Bernauer and David Ramussen, Cambridge: The MIT Press, 1988.
- Foucault, “Politics and Reason”, in *Michel Foucault: Politics, Philosophy, Culture*,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Kritzman, Lawrence D. New York: Routledge, 1988.
- Hindess, Barry, *Discourses of Power: From Hobbes to Foucault*,

-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6.
- Hobbes, Thomas, *Leviathan*, London: Penguin Books, 1968.
- Hoy, David Couzens, “Power, Repression, Progress: Foucault, Lukes, and Frankfurt School”, *Foucault: A Critical Reader* (Ed.) by Hoy, David Couzen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Lukes, Steven, *Power: A radical view*, Palgrave Macmillan, 2005.
- Morriss, Peter, *Power: A philosophical Analysi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2.
- Watrtenberg, Thomas E., *The Forms of Pow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0.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a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8.

ABSTRACT

Foucault's Critic and Supplement to the
Contemporary Discussion of Power

Kim, Boo-Yong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explanatory force of Michel Foucault's concept of power by determining its possibility to provide the criticism of and the supplement to the contemporary discussions of power. Among the discussions around power the significant one is about the mode of exercising power when compared to Foucault's concept since Foucault's main concern regarding power is the following question: 'How is power exercised?'

There are two main ways of seeing the mode of exercising power: 'power to' and 'power over'. Even though Foucault's concept of power is close to 'power over', which means the capacity to exert its force through human relationships, it does not correspond to 'power over' in the aspect that 'power over' is apt to be equated with domination. Foucault's criticism of the two powers is focused on their inability to secure productivity. Since power is regarded as substantial in these modes of exercising, it is revealed as repressive and cannot guarantee productivity. On the other hand, Foucault's concept is nominalistic, so it can conduct the productive function.

Foucault's concept can supplement 'power to' with the room for reversibility and 'power over' with another capacity beyond domination. Thus, Foucault's concept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and productivity for both. Therefore, Foucault's concept turns out to have more adequate force to explain the actual phenomenon of power than 'power to' or 'power over'.

Keywords: Substantial Concept of Power vs. Nominal Concept of Power, Power to vs. Power over, Productive Concept of Power vs. Repressive Concept of Power